꿈꾸지 마요, 이 꿈 도둑님아!

(이사야 65:1~25)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꿈꾸지 마요 이 꿈 도둑님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꿈꾸지 마요 이 꿈 도둑님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위인이나 유명인들이 말하는 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엾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엾은 건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했고, 괴테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했고,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꿈과 한 마리의 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도준 씨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명언들은 저리가라입니다. 이에 더해 작가의 책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악수까지 나눈 두 소년은 그날부터 꿈을 키웠다. 훗날 한 소년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소년은 UN 사무총장이 되었다. 둘 다 연임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위인들이 문제입니다. 위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좋아진 것일까요?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위인들 때문에 세상은 힘들어지고 삶은 무거워지고 미궁에 빠지는 중일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지 위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갖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구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움이 필요하고 마음이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꿈도 마음 채움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이루어도 마음이 채워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행복하기 위해서 꿈꾸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꿈을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꿈꾸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갖는 꿈은 독이 됩니다. 내 생애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꿈꾸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상실됩니다. 내 생애와 관련된 꿈은 본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이루겠다고 움직이는 동안 나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라에게서 나오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몸종인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어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모습을 예로 들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고,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자는 그러한 약속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는 것이지 그가 하는 약속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지 아브라함보고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삭을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언제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에 대해 가져야 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 어떤 꿈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앞에 둔 여자는 단지 그 남자로 충분합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열변을 토하고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세 단계로 표현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채우시는 가운데 생겨나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되심으로 서로를 채우시며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인간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꿈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생애가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모시켜서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계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꿈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담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본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시리라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참혹

하고 잔인하게 묘사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론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량인간은 폐기처분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지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되어야 마땅한 인간을 되돌리기 위해 시온에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세상에 대해 꿈꾸는 마음을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민에게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원문대로 살펴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였고,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통해서 깨어진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민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그만두고 시온의 번제단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당신이 찾아지시고 당신이 응답하시고 당신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려는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세상과 삶에 대해 스스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꿈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저버린 채로 스스로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꿈을 다 도둑질하고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꿈을 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쁘고 만족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 채 풍요와 다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꿈꾸게 되자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꿈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깨뜨려버리고 도둑질해버린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부분을 보면 선민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송이마다 짓무른 것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것이 있기 나름입니다.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포도송이 중에도 포도알이 짓무른 것이 있고 멀쩡한 포도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묘사는 하나님의 꿈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본문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묘사와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장수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대로 적용하면 초대 예루살렘교회에서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지만, 각자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기쁨과 만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시대에도 시온의 번제단의 상번제를 생활화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당신이 꿈꾸고 계셨던 것을 나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선민들조차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고 훔쳤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새 역사를 만드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꿈꾸라’는 말을 언제나 정당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인들이나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꿈꾸고 이루어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도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꿈 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삶은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빼앗고 스스로 꿈꾸려 했기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하신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위일체 되심에 연합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추진력은 비어있는 마음에서 생기는 무언가를 빨아들이고자 하는 힘입니다. 이 흡입력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만나야 할 분이 아니라 지금 만나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여신 길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마음 공백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세상을 담은 마음이 꿈꾸려 할 때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소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인을 보고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인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세태가 확산될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책 좀 그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한 마디로 줄이면 꿈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시절에는 책도 없었고, 우가릿 문서로 점토판에 쐐기모양의 글자를 새겼습니다. 너무나도 귀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나 사용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모르는 편이 바른 길을 가기에 편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다윗 이사야 사도 바울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의 영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고 성경공부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정보로 인해 길을 혼동하기 십상이고, 비전과 꿈이라는 엉뚱한 소리에 성경말씀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에는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짊어지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기나 잡던 사람이 회당에서 반복되던 몇 구절의 말씀이나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몰라도 될 것은 너무나 많이 알면서도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 단계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되심

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은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마음에 담고 사랑할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나보고 꿈을 꾸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도둑질 당하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나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세상에서의 꿈이 이루어질 때에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결코 미래를 향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지금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자들을 향해 기쁨과 만족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앞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닌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위인은 꿈을 이룬 유명인이 아닌 꿈을 버린 아브라함이고 창녀 라합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룻입니다. 세상에 위대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가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위일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간으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원죄의 체질은 자꾸만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하게 하고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이 원죄의 체질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세 단계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단 한 가지 십자가 생활화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